

##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운영지원센터와 한마음으로 발맞춰 국립박물관단지의 내일을 연다!

- 국립박물관단지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문화 현장에서 찾는 새로운 변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이사장 임철빈)는 국립박물관단지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행복청은 지원센터와 함께 국립박물관단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발전방안 간담회’를 21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두 기관이 정책 수립 기관과 현장 운영 기관이라는 경계를 넘어, ‘국민이 즐겨 찾는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회의실 논의에서 벗어나, 우수한 문화인프라를 직접 경험하고 해법을 찾는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내 최초의 수장형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을 방문하여 개방형 수장고와 보존과학시설을 견학하고 국립박물관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이후 충북콘텐츠큐리아랩으로 자리를 옮겨 국립어린이박물관과 통합수장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채로운 변화들이 다루어졌다. 우선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어린이 관람객 연령층을 늘리기 위해 ▲하반기 기획전시 개편 현황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8월 준공되는 2차 통합수장고의 ▲수장시설 및 보존과학실 구축과 운영 방안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방안 등에 대해 양 기관이 지혜를 모았다.

행복청과 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선 과제들을 향후 박물관단지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높은 문화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홍순민 시설사업국장은 “국립박물관단지가 국민 모두 즐겨 찾는 문화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와 늘 소통하고 발맞추어 가겠다”라며, “어린이의 호기심과 관람객의 문화적 감동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키워나가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지원센터 임철빈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채로운 기획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표 문화 공간이 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립박물관단지는 2027년 도시건축박물관이 개관하고 통합수장고와 보존과학시설을 본격 운영한다. 2030년까지 국립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등이 추가로 들어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문화 시설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 붙임 1. 간담회 행사 사진

## 2. 국립박물관단지 조감도 및 개요

|       |                                 |     |     |                    |
|-------|---------------------------------|-----|-----|--------------------|
| 담당 부서 | 시설사업국<br>국립박물관단지팀               | 책임자 | 팀 장 | 정충무 (044-200-3350) |
|       |                                 | 담당자 | 연구관 | 정선희 (044-200-3344) |
| 담당 부서 |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br>기획조정실 기획홍보부 | 책임자 | 실 장 | 정찬욱 (044-200-3010) |
|       |                                 | 담당자 | 부 장 | 이동혁 (044-201-3011) |





<국립박물관단지 발전방안 간담회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회를 마치고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의 보존과학실에서 근현대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의 복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건립근거: 「행복도시법」 제39조(건설청장 업무) 및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S-1생활권 문화시설용지(문S-1)
- 규모·기간: 부지 77,064㎡, 연면적 84,788㎡ / 2016년 ~ 2029년  
※ 박물관단지 기본계획 수립('11.12), 예타 통과('15.2), 마스터플랜 수립('16.12), 1단계 착공('20.12)
- 총사업비: 4,900억원 / 토지매입비 683, 시설비 3,865, 시설부대경비 352
- 주요시설: 5개 개별박물관, 통합지원시설(통합수장고, 통합운영본부동 등)

| 구분  | 건 립 시 설 (연면적 총 84,788㎡)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1단계 | 통합지원시설(1차)*,<br>어린이박물관(행복청)  | 16,928㎡ | 착<br>공 | 공<br>사 | 공<br>사 | 준<br>공 |        |        |        |        |        |        |
| 2단계 | 도시건축박물관(국토부)<br>통합지원시설(2차)** | 31,548㎡ | 공<br>모 | 설<br>계 | 설<br>계 | 설<br>계 | 착<br>공 | 공<br>사 | 준<br>공 |        |        |        |
| 3단계 | 디자인박물관(문체부)                  | 16,170㎡ |        | 공<br>모 | 설<br>계 | 설<br>계 | 설<br>계 | 설<br>계 | 착<br>공 | 공<br>사 | 준<br>공 |        |
|     | 디지털문화유산센터(유신청)               | 9,995㎡  |        | 공<br>모 | 설<br>계 | 설<br>계 | 설<br>계 | 설<br>계 | 착<br>공 | 공<br>사 | 준<br>공 |        |
| 4단계 | 국가기록박물관(기록원)                 | 10,147㎡ |        |        |        |        | 공<br>모 | 설<br>계 | 설<br>계 | 착<br>공 | 공<br>사 | 준<br>공 |

\* 통합지원시설(1차): 통합운영본부동(100%)·통합수장고(50%)·주차장(일부)

\*\* 통합지원시설(2차): 통합수장고(50%), 지하주차장(잔여)

